

세계지방자치동향



지방재정

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숙박세 도입
현황과 과제
- 나성인 통신원(일본)

지역발전

뮤니시팔리즘(Municipalism)에서
배우는 도시 공간정책
- 박지연 통신원(독일)

지역발전

아스펜 시(City of Aspen)의
재생에너지 저감 프로그램
(Renewable Energy Mitigation
Program; REMP)
- 김진탁 통신원(미국)



한국지방행정연구원
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

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숙박세 도입 현황과 과제

개요

- 2002년 동경도(東京都)가 처음으로 국제도시로서의 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한 숙박세를 도입
- 일본 지자체의 만성적인 재정 부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관광산업의 확대를 통한 지자체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의의

숙박세의 도입 배경

- 2000년 지방분권 일괄법에 의한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해 법정외세가 신설됨 : 법정외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자치 단체가 세목 및 세율 등을 지자체 조례로 도입 가능
-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(2012년 약 600만 명에서 2017년 2,800만) :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 설비가 부족(관광안내소, 주차장, 도로, 무료 wi-fi 등)
-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(외부불경제의 발생 : 교통체증, 불법주차, 소음, 쓰레기 배출량의 증가 등)
- 숙박세 도입은 지역주민의 동의가 얻기 쉽고 과세기준 및 방식도 비교적 간단하여 정치적으로 도입이 비교적 용이

숙박세의 도입 현황

- 2002년 동경도가 처음으로 숙박세를 도입, 2019년 11월 현재 동경도(東京都), 오사카후(大阪府), 교토시(京都市), 가나자와시(金沢市), 북해도굿찬정(北海道倶知安町)이 도입하였고 확대되고 있음
-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제도시로서의 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재원으로 편입되고 있음
- 납세자는 호텔, 여관, 민박시설 등의 숙박시설이고 세부담자는 숙박객 : 식당 및 시설이용 등에는 부과 되지 않음

표 1 | 일본 지자체의 숙박세 도입 현황

	동경도	오사카후	교토시	가나자와시	구창정
도입시기	2002년10월	2017년1월 2019년6월개정	2018년10월	2019년4월	2019년11월
대상시설	호텔·여관	호텔·여관·민박	호텔·여관·민박 (수학여행은 제외)	호텔·여관·민박	호텔·여관·민박 (수학여행은 제외)
세액	•1만엔미만 : 면제 •1~1.5만엔 : 100엔 •1.5만엔이상 : 200엔	•7천엔미만 : 면제 •0.7~1.5만엔 : 100엔 •1.5~2만엔 : 200엔 •3만엔이상 : 300엔	•0~2만엔 : 200엔 •2~5만엔 : 500엔 •5만엔이상 : 1000엔	•0~2만엔 : 200엔 •2만엔이상 : 500엔	숙박요금의 2%

자료: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

숙박세의 문제점 및 시사점

- 이종과세의 문제점 : 2019년 후쿠오카현과 후쿠오카시가 독자적으로 숙박세 도입을 검토함에 따라 이종과세 문제가 부각됨(결과적으로 과세에 따른 세수 배분을 함의)
- 법정외세로 도입된 숙박세는 필연적으로 이종과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: 법정외세 에서 법정세로의 전환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
- 숙박세의 부과 대상 숙박시설에 대한 공평성 : 지자체에 따라 게스트하우스, 에어비앤비 숙박 시설에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평성 문제
-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역격차 문제 : 숙박세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의 대부분이 관광객이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도입
- 관광객이 적은 지자체는 숙박세의 도입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크지 않고 관광객의 감소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도입하고 있지 않음
- 세수의 사용처에 대한 검증이 미비 : 숙박세가 도입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세수가 일반재원으로 편입되고 있어 세수의 사용처에 대한 검증이 필요
-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재원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지역격차 및 이종과세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법정세로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



나성인 통신원

(히로시마수도대학 인간환경학부 교수)
nasungin@shudo-u.ac.jp